

함께하면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1. 성령강림후 스물한번째 주일

오늘은 성령강림후 스물한번째 주일입니다.

## 2. 후례즈노 교회 주중 사역안내

중보기도모임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 3. 성경공부 안내

예배후 성경공부를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후 모이겠습니다.

## 4. 10월 행사안내(담임목사 일정)

10월12일(수): Circuit meeting

10월24일-27일: Partner in Ministry Conference: LA

## 5. 목회협조위원회, 재정위원회, 공천위원회

목회협조위원회: 10월16일 주일 예배후 모입니다.

(안광빈 윤문섭 김의숙 김형기 임동재 엄선영 최승희)

공청위원회: 10월15일 토요일 저녁 8시에 모입니다.

(홍윤기, 안광빈 윤문섭, 장영심 김현덕 임동재 김형기, 최미란, 구자홍)

재정위원회 모임일정은 다음주에 알려드립니다.

## 6. 정기임원회의

예배후 10월30일은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 예배위원 안내 및 봉사자

	회중기도	성경봉독	점심봉사
10월09일	김의숙 집사	최승희 집사	차석준 최성보 김경호
10월16일	장영심 집사	김의숙 집사	김규현 김형기 윤문섭
10월23일	최성보 집사	장영심 집사	홍윤기 구자홍 안광빈
10월30일	이용숙 집사	최성보 집사	임동재 최성보 김현덕
10월안내	임정원 한순옥	10월총불점화	김형기 김현숙



Fresno 후례즈노

Korean 한인연합감리교회

United Methodist Church

1726 Pollasky Ave Clovis, CA 93612 (559)299-0240

www.fkumc.net fkumc@fkumc.net

## 목회자 칼럼



## 이세종: 모든 것을 비우고 나누고

전남 화순군 도암면 등광리 개천산 기슭 산골에 ‘이세종 수양관’이 있다. 이세종(1880-1942)이 그리스도인이 된 뒤 기도하던 산당 바로 밑에 제자들이 지은 집이다. 이세종은 사십이 넘어서도 자식을 얻지 못하자 산신에게 공을 들이려고 무당이 잡아준 터에 산당을 지었다. 그런데 산당을 짓던 목수가 기독교 신자여서 일할 때 찬송을 부르고, 월 때 성경을 보는 것이었다. 까막눈이었던 이세종은 성경을 빌려 글을 아는 사람에게 읽어 달라고 부탁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 후로 그에게 눈이 열리고, 이어 하늘이 열리는 기쁨이 찾아왔다. 그 기쁨으로 밤을 밝혀 글을 깨치고 성경을 훑뚫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자식이나 재산에 대한 미련을 모두 거두고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다. 이세종은 풍채가 좋고 힘이 셋으며 얼굴도 잘 생긴 사람이었다. 머슴살이로 논 100마지기를 장만하고 살림을 불려왔지만, 이 변화를 겪고 나서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고리를 받기 위해 빌려주었던 부채 문서도 태워버렸다. 자연의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일체의 육식을 끊었다. 그리고 아내를 누이로 대하여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다. 아내는 불만에 찬 나머지 바람이 나서 두 번이나 가출을 했다. 그는 나무라지 않고 아내를 다시 집으로 맞아들였다. 자신이 느낀 감격을 아내에게도 맛보게 하기 위해 한글을 깨우쳐 주며

성경을 읽게 했다. 하나님의 영을 접하고 나면 세상의 욕심을 비워야 한다는 것이 이세종의 확신이었다. 그는 설교자도 신학자도 아니었으나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 기독교 영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신학적으로는 유·불·선의 도통과 같은 체험이라고 비평을 가할 수 있겠지만 그의 영성은 한국에 초기의 기독교가 영적으로 자리를 잡는 성스러운 기회가 되었다. 이세종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아내는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늘을 향해 누울 수 있겠느냐!”며 남편의 묘 곁에서 옆으로 누워 새우잠을 자다가 찬송을 부르며 눈을 감았다.

그의 삶을 본받으려 하는 제자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맨발의 성자”라 불리는 이현필(1913-1964)이 가장 그를닮았다고 할 수 있다. 고아들과 결인들, 폐병 환자들에게 옷을 벗어 주었고 맨발로 눈길을 걸어 탁발을 해서 그들을 먹이다가 자신도 폐병에 걸려 세상을 떴다. 후세의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한국의 프란체스코”라 부른다.

후례즈노 한인 연합감리교회  
Fresno Korean UMC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 119:58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를 통해서 듣고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

광야의 시즌에서 우리는 기도를 새롭게 배우고, 말씀을 새롭게 받는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게 임하는 곳이 바로 광야이다.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한총



예수님이 제자되는 것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일오후 12시30분

예배인도: 김규현 목사

## 입례찬양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경배와찬양 Praise &Worship	찬양팀	
입례송 Anthem	다함께	36장

## 고백

신앙고백 Confession	다함께	사도신경
영광송 Gloria Patri	다같이	3장
기도 Prayer	김의숙	집사

## 말씀선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임후 2:8-15
설교 Sermon	김규현 목사	

##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 헌신과 나눔

봉헌송 Offering	다함께	615장
찬양 Hymn	다함께	
교회소식 / Announcement	인도자	
축도 / Benediciton	김규현 목사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 예배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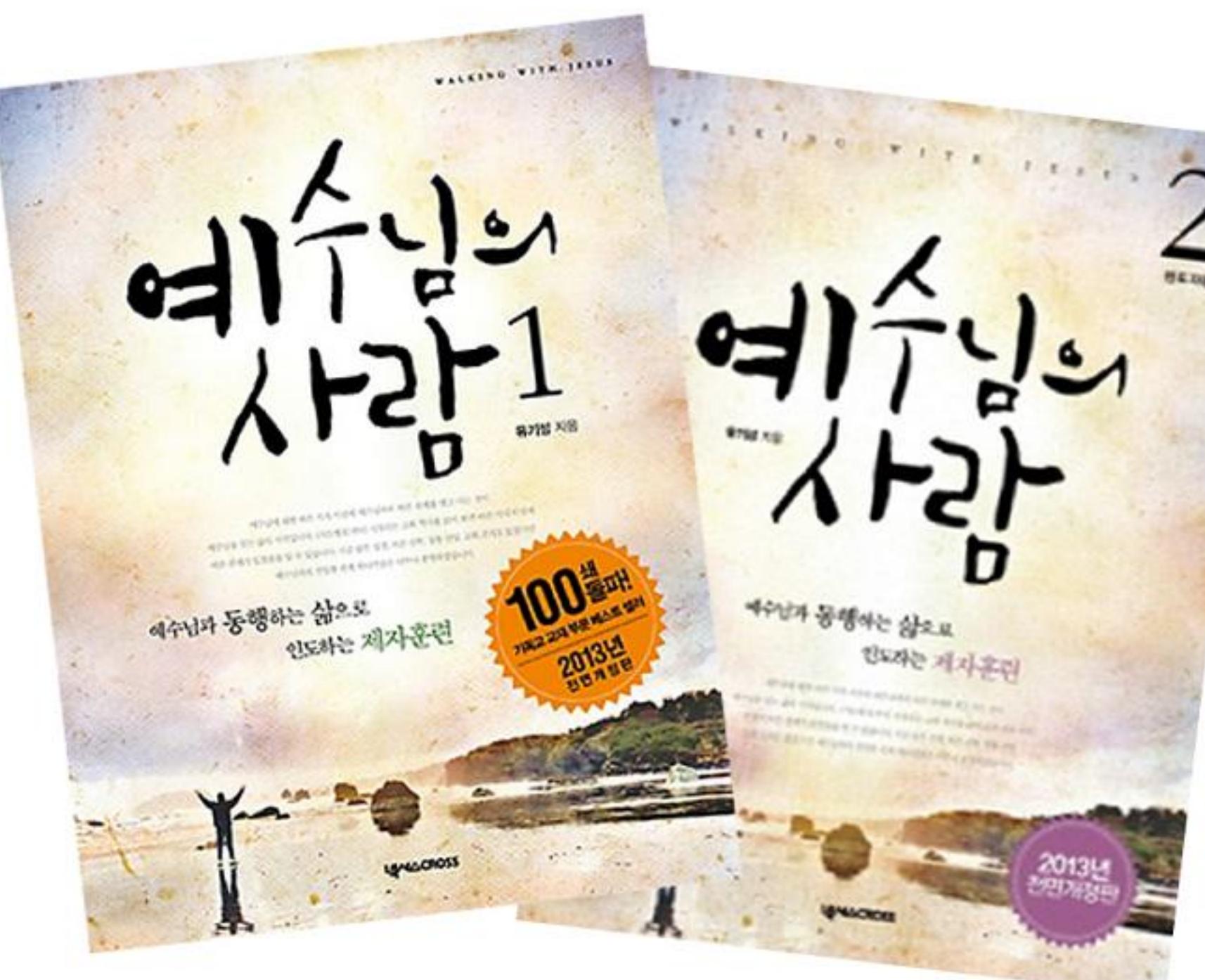
새벽기도회 화-토 새벽 6시	바울서신 강해
수요성경공부 저녁7시30분	예수님의 사람 회의실 교회력설교
주일예배 낮: 12시30분 저녁: 7시	주일저녁 찬양예배
토요아침성경공부 아침7시	예수님의 사람

중보기도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1. 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위해: 영적갱신,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2.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위해
3. 교회리더들을 위해: 모든 직분자와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위해 그리고 각 부서를 위해
4. 교회학교사역과 준비하는 사역을 위해
5. 질병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6. 2016년 기도제목을 위해 (개인별)
7. 교인들 사업장을 위해
8. 후레즈노 교회 주중사역을 위해

10월 생일자: 엄선영(10/21), 윤성자(10/18), 구본준(10/25) 김사라(10/24)  
김민지(10/27)

◆ 함께 나눌 기도제목은 알려주시면 새벽예배와 중보기도회를 통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 2016년 성경공부

## 예수님의 사람

## 지난주 현금 통계

주일현금	영, 김혜진 윤문섭 임경희 조옥화 차석준 차경미 최승희 최미란 한순옥
감사현금	김구현 홍윤정 이하늘 홍윤기 김의숙
십일조	홍윤기 김의숙
기타	합계 \$645.00

10월은 각위원회 모이는 날입니다.

10월15일 토요일 저녁 8시

## 공천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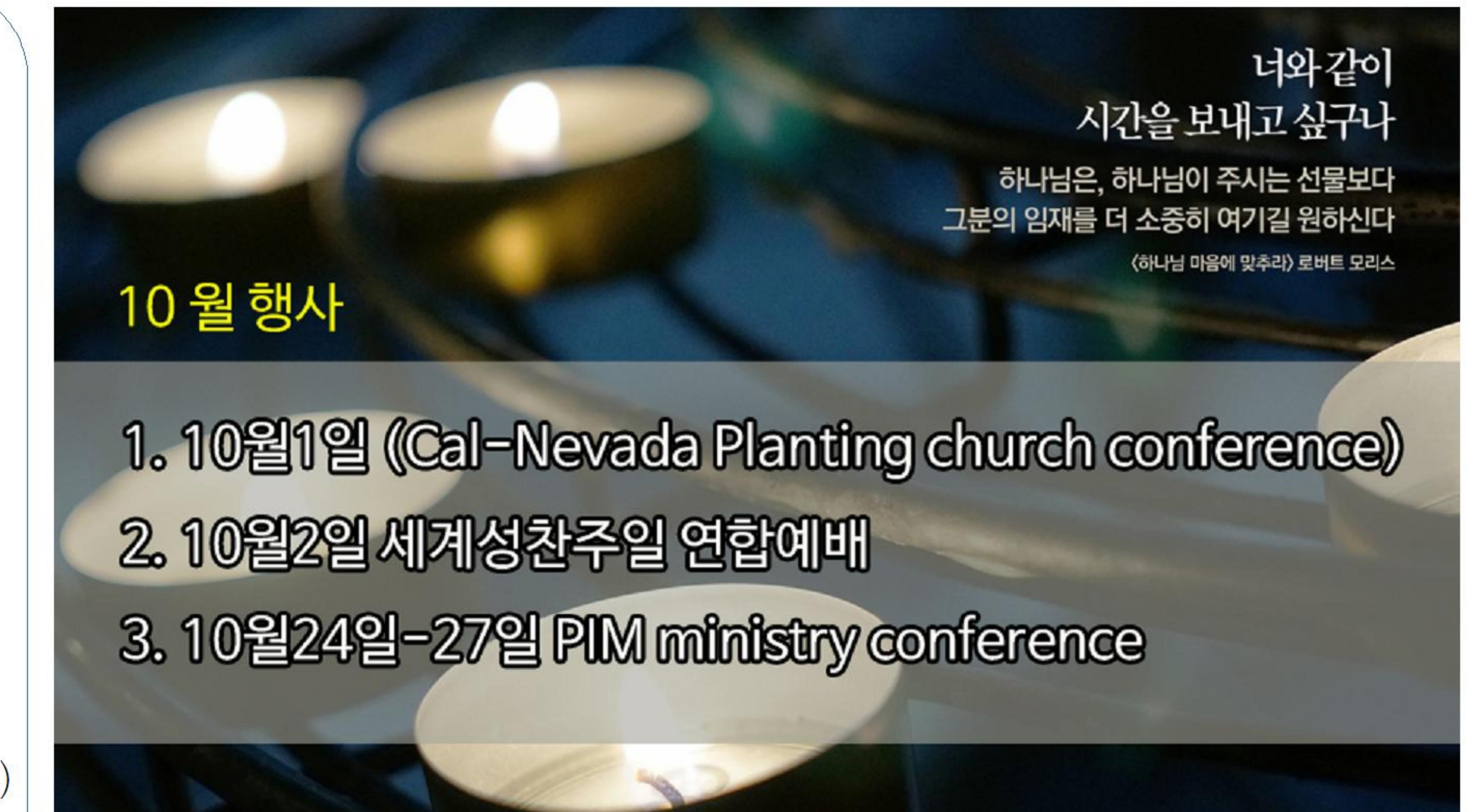
10월16일 주일 오후 점심식사후

## 목회협조위원회

10 Octo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너와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보다  
그분의 임재를 더 소중히 여기길 원하신다  
(하나님 마음에 맞추라) 로버트 모리스



나의 영혼이 잡잡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주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1